

수신 : 원장

참조 : 경영본부장, 센터소장, 동북아팀장

<중국경제동향보고 2001-33>

2001. 9. 17

KIEP 북경사무소

美 테러 사태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

□ 9월 11일 발생한 미국내 테러 사태가 대외무역, 증권시장, 환율 등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중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음.¹⁾

- 미 테러사태로 단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불안이 가중될 것인바, 이는 중국의 대외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.
- 그러나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내수확대정책으로 대외교역 부문의 불안은 충분히 상쇄될 수 있음.
- 인민폐 환율의 경우 현재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나, 달러화의 약세가 지속될 경우 평가절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.

1. 대외무역에 미칠 영향

□ 미국은 중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므로 이번 사태에 따른 미국경제의 불안 가중은 중국의 대외무역액의 하락을 초래할 것임.

- 중국 정부는 당초 하반기부터 미국 경제가 회복되어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음. 그러나 금번 사태로 인해 미국 경제가 내년 1/4분기에도 침체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국의 대미 수출에도 부정적

1) 본문의 내용은 2001년 9월 13~14일자 <中國經濟時報>, <粵港信息日報>, <中國經濟信息网>를 정리한 것임.

인 영향을 미칠 것임(DRC 대외경제연구부 張小濟 부장).

-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은 이번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,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함.

2. 증권시장

□ 9월 12일 상해와 심천 주식시장이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는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.

- 중국 주식시장은 대외개방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외부의 충격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음.
-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중국 주식시장도 일정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나, 중국 주식시장이 기본적으로 해외변수보다는 국내변수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조만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(사회과학원 楊帆 연구원).

3. 인민폐 환율

□ 테러사건으로 전 세계의 외환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것과는 달리 아직 자유태환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인민폐는 종전과 같은 수준인 달러당 8.2770 위엔을 유지하고 있음.

- 외환거래도 안정세를 유지하고는 있으나, 금융전문가들은 투자자들에게 당분간 미화 보유액을 축소하라고 권고함.
- 중국은행 국제금융연구센터의 王元龍 연구원은 만일 달러화의 약세 추세가 지속된다면 인민폐 환율의 평가절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, 이는 중국 제품의 수출에 새로운 어려움을 조성할 것이라고 언급함.

4. WTO 가입

□ 현재 WTO가입에 관한 쌍무적인 절차가 모두 종결되었고, 다자간 절차만 남았으므로 이번 사건으로 중국의 WTO 가입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임(DRC 대외경제연구부 張小濟 부장).

- 또한 앞으로 긴박한 사태로 WTO 일정이 연기되더라도 이는 기술적인 문제일 뿐 중국의 WTO 가입은 불변이라고 淸華大 국제문제연구소 閻學通 소장은 지적함.

5. 외국인투자

□ 금번의 테러사건은 미국 경제의 불황 회복을 더욱 더디게 하고, 특히 미국민의 소비 심리를 급속히 냉각시킬 것인바, 이는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입에도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(중국어은행의 王元龍 연구원).

-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투자환경이 악화된다면 상대적으로 정치, 사회가 안정된 중국으로 대량의 해외자본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음(西南證券 張剛 애널리스트).(***)